

## 게임에도 정치적 올바름이 필요할까?

김민기

게임을 좋아하는 게이머라면 라스트 오브 어스2를 모를 수 없다. 역작이라고 평가받는 전작의 후속작이기에 기대받았다. 엠바고(사전정보공개금지) 전까지도 평론가들의 평점은 전작을 뛰어넘는 찬사가 이어졌다. 실제로 플레이 해 본 게이머들의 평가는 정반대였다.

라스트 오브 어스2의 문제점은 스토리에 있다. 전작에서 주인공들(남:조엘, 여:엘리)이 아포칼립스 세상에서 서로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잘 표현했으나 현재에 와서는 조엘이 애비에게 허무하게 죽으며 전작의 스토리를 선호하던 게이머들의 맨탈은 부서진다.

이 게임은 플레이하는 캐릭터가 챕터마다 바뀌는데 전작을 재밌게 즐기던 게이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살해한 캐릭터를 플레이해야 한다. 이 부분이 불쾌한 느낌을 받는데 그 캐릭터가 조엘을 살해한 이유를 정당화함으로써 거부감이 더 커진다.

또한 캐릭터 사이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되는 레즈비언 캐릭터 '애비'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 게임이기에 어느 정도 허구적 요소가 가미되지만, 여성이 그 어떤 남성보다 힘이 강하고,

본인의 문제들이 쉽게 해결된다. 뜬금없이 레즈비언 캐릭터가 영향력을 가지고 먼치킨(강력한 캐릭터)처럼 스토리가 진행되는 게 올바른 게임의 방향성일까?

정치적 올바름 일명 PC가 지나치게 보편화되면 사회가 전체주의로 변하게 되고 특정 사상을 강요받아 개인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

올바름이라는 착각의 저자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정치적 올바름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세태는 과도한

동정심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개인이 어떠한 이유에서도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 (중략) 이러한 과도한 동정심

은 학생들의 지적탐구와 깊은 고찰을 방해하며 특정 성향에 쉽게 물들도록 만들고 있다."

요즘 게임계는 이것을 게임 내 요소에 접목해 유저들에게 강매하고 계몽시키려 한다. 특히 라스트 오브 어스2의 경우 대표적인데 기존 가치관을 버리고 PC를 부각하기 위하여 기존 캐릭터들을 처리한다.

조엘은 중년, 남성, 백인 PC주의의 대표적인 표적이고 사실상 부녀관계였던 엘리는 복수귀가 되

어 가족은 해체(가부장 제적 결합 타파)되고 애비는 탈코르셋, 강한 여성 큰 몸집의 짧은 머리 여자이며 애비가 데리고 다니는 레브 라는 인물은 트랜스젠더, 동양계 미국인, 청소년으로 넣지 않아도 될 요소들 그로 인하여 게임 내 서사가 망가지는(아포칼립스로부터 헤쳐 나가는 것이 아닌 강한 여성의 서사) 불필요한 요소이다.

현재 PC주의는 자체가 미국 인문학도 사이들에서 기본 소양이기도 하며 채용 시 이러한 부분은 감안 안 할 수 없겠지만은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은 보통 고학력자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며 인문학도도 아니다. 대상을 잘못 잡았다.

실제 동성애자인 전작의 팬도 게임에 대해 실망스러움을 표했다. "난 사람들이 우리들을 이용해 먹는 거에 질렸어. 난 게

이이고 내 남자친구는 라오어 1편에 대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진정한 팬이었어. 너흰 그가 사랑한 모든 것을 앗아 가버렸지. (중략) 제발 게이 커뮤니티를 너희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마. 불쾌하니까."

해당 게임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즐기고 싶을 뿐이지 내 캐릭터가 억지로 소수자들에게 살해당하며 기존에 즐기던 스토리가 바뀌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비유하자면 이렇다. 치즈 돈가스로 유명한 연돈에서 치즈 돈가스를 먹고 싶어 왔는데 콩 고기 돈가스를 내어 주며 몸에 좋으니 이걸 먹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게임을 하는 이유는 내게 큰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게이머는 본인이 플레이하는 게임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평범하게 보면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지금 PC사태는 취미를 즐기면서 사상을 강요 받고 혐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면 몰상식한 사람, 차별주의자가 된다. 민주주의의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특정 사상을 강요 받는 세상이 정말 올바른 것일까?

인용출처

1)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 [올바름이라는 착각], (데이포미), 34%(전자책기준)

2) <https://www.metacritic.com/game/playstation-4/the-last-of-us-part-ii/user-reviews>